

스피노사의 宇宙觀

安浩相

우리의 想像에선 百과 千의 物體가 서로서로 같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直觀에선 오즉 두 物體가 서로 같지 안타. 南山에 우거진 솔밭 北岳山의 장엄한 바위들(岩石) 그곳엔 뗏 만개의 솔 나무와 바위 돌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솔 나무와 바위 돌 가운데서 꼭 다 같은 두 날의 솔 나무와 두 덩이 바위돌이 없으리라. 이 솔은 저 솔보담 이 바위는 저 바위보담 제 각각 다른 제들의 홀로 된(固有한) 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찌 솔과 솔 사이며 바위와 바위사이뿐이라! 한 개의 솔 나무의 한 가지(一枝)에 달닌 솔 잎을 낱낱이 살펴 보드래도 단 두 날의 솔잎들이 꼭 같은 것은 없으리라. 이를 말미 암이 宇宙의 萬物은 千態萬象이오 變化無常이다.

宇宙안의 森羅萬象은 서로서로 다르며 제각각 變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피노사이 眼光에는 萬物이 다르다고 서로서로 關係없음이 아니오. 萬物이 變한다고 原因없이 되는 법이 없다. 두 날의 솔 나무가 서로 서로 다르다고 그 하나는 솔 나무요 그 다른 것은 솔 나무 아니라고 못할 것이다. 두 자는 비록 다르나 다 같은 솔 나무다. 솔 나무와 대나무는 다르기가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은 植物인지라 植物이란 그 점에선 다 같다. 솔 나무와 孔雀이 그들의 하나는 植物이오. 그 하나는 動物이라. 그 두자는 감히 비교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솔 나무와 孔雀 이는 植物에 속하였다. 그럼으로 그들은 植物이란데선 다 같다. 또 다시 萬象의 그 어느 것이 안 變함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솔 나무가 내일엔 대나무로 변하거나 또 오늘날의 개셋기가 내일엔 소셋기로 變치 안는다. 솔은 언제든지 솔이오. 개는 언제든지 개로만 變하리라. 이를 말미암아 萬物은 각각 다르되 서로서로 같음(同一)이 있고 時刻으로 變하되 늘 (恒常)남음(留存)이 있다. 여기서 이러날 問題는 「무슨原因으로서 萬象의 속에 같음이 잠겼으며 永變의 속에 남음이 있는가?」 이 問題가 이 論文의 探究의 對象이오 解決의 目的이다. 이 目的을 達키위하여 먼

저 「어찌해서 物體가 있게 되는가?」 하는 問題를 푸러야 될 것이다. 스피노사에 의하면 物體는 제가제를 되게도 못하며 안 되게도 못하는지라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요. 또 되기 실패해서 안된 것도 아니다. 벽에 걸린 寒暖計의 水銀柱가 아침에는 十餘度 正午에는 二十餘度를 가르침이 결코 水銀柱의 任意로된 偶然的이 아니라 그것은 오즉 그 所與한 原因들의 偶然的 結果이다. 곧 太陽의 덩이(熱度)를 따라 그러함이다. 天地萬物 그 어느 것이 原因없이 된 것이 없다. 한 物體가 없어지며 없어짐은 오즉 그 外界의 所與한 原因들의 必然所行이요. 결코 그 物體 제의 任意로된 偶然的이 아니다. 그럼으로 萬物의 全體인 宇宙는 오즉 原因가 結果의 不絶한 列 곧 因果連結로서된 것이다. 모든 物體들의 全體인 宇宙는 곧 모든 結果들의 全體일 것이다. 낱낱의 物體는 여러 原因들로서 있게 때문에 그는 또 다시 여러 原因들로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物體들의 全體인 宇宙는 한낱(一個)의 物體가 있어진다고 부러(擴大)지며 또 한 낱의 物體가 없어진다고 주러(縮小)지는 법이 없다. 宇宙의 全體에선 더(加)도 없고 덜(減)도 없고 오즉 같음(同一)뿐이다. 그럼으로 스피노사는 「宇宙는 永遠한 변치 않는 整頓」 이라고 하였다.

物體들은 오즉 結果들이요. 또 宇宙는 오즉 結果들의 全體라고 만하고 다시 거게 맞은 原因을 가르치지 아니함은 物體의 可能과 宇宙의 存在를 否定함 이리라. 그러나 物體와 宇宙는 事實로 있는지라 거게에 맞은 原因이 반드시 있음에 틀니지 안는다. 만일에 이러한 原因이 있다면 이 原因은 現實的 物體가 다른 現實的 物體의 原因되는것 보담은 전혀 한 다른 것이랴야 될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이 物體의 原因이 되는 物體는 제 自體가 역시 다른 物體로 붙어 規定해인지라 제 自體가 또한 한 原因의 結果에 더 넘지 못하는 때문이다. 이것을 例를드러서 밝힐 수가 있다. 가령 비가 온다 하자 비의 原因은 구름이요. 구름의 原因은 水蒸氣요. 또 이것의 原因은 물일 것이다. 그러면 여게서 다시 물의 原因을 무를 것이요. 또 물의 原因의 原因을 무러서 이같이 작고작고 무러 어느 한 最後의 끝점에 다일 것이다. 그러면 이 끝점이 그 唯一한 첫째 原因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最初의 原因은 物體가 다른 物體의 原因으로서 있는 것과 같이 제가다시 제밖에 어떠한 原因을 갖나인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物體들의 唯一한 最後의 原因인 동시에 또 다시 제가 제의 原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萬物의 最初의 可能原因이요. 또 참되고 根源的 本體일 것이다.

그러면 그 무엇이 그 最後의 原因으로서 萬物의 共通者요. 宇宙의 本體런가? 여게 대한 스피노사의 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즉 「神」이란 그 한마대 뿐

이다. 宇宙萬物 그 어느 것이 이 神의 惠澤을 안입는 者 없으며 이 神의 威力에 服從치 안는 者없다. 오즉 神의 뜻(意志)에 依해서 物體가 있게 되며 없게 된다. 神은 萬物의原因이오, 萬物은 神의 結果요, 모디(樣式)이다. 宇宙의 本體가 神이오, 神의 動作이 宇宙이다. 神으로 붙어진 宇宙만 神을 떠나지 못할 뿐 宇宙를 되게 한 神이 도한 宇宙를 떠나지 못한다. 神은 永遠한 原因的 原因으로서 宇宙의 품속에 안기어 있고 宇宙는 永遠한 必然的 結果로서 神의 품속에 안기어있다. 神을 떠난 宇宙는 宇宙가 아니오, 宇宙를 떠난 神은 神이 아니다. 神은 宇宙의 神이오, 宇宙는 神의 宇宙다. 이 스피노사의 一元說이 오즉 唯心論的 理論家에게 뿐만 아니라 또다시 唯物論的 理論家에게도 꼭 재미있는 問題이란 것이다. 그럼으로 現代의 歐洲에선 唯心論者 뿐만아니라 唯物論者또한 많은 興味를 갖고 스피노사를 研究하는중이다.